

## Realization of the Biographicity of a Former Middle School Art Teacher Whose life Became Art

Kim, Su-hee (Hesed English Institute)

Jun, JuSung<sup>1)</sup> (Soongsil University)

---

< ABSTRACT >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a former middle school art teacher who had been teaching for about 20 years. After transferred from middle school teacher to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and she played a key role in the overall field of decision making of Korean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y.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based on life history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was conducted.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ism and transition of professions in the personal life history of the research participant. The meanings of life history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research participant devoted herself to the realization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in Korea. Second, the historical flow of Korean art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was integrated into the life history of the research participant. Third, the research participant has made continuous existential choices in her life. She became a true self through countless existential choices as the subject of her life.

**Key Words:** Korean culture and arts education policy, realization of biographicity, experiential learning, critical theory

---

---

1) Corresponding Author: Jun, JuSung, Soongsil Universit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Korea, 06978 / E-mail: jnet@ssu.ac.kr  
Received: August 22, 2017 / Revised: September 12, 2017 / Accepted: September 19, 2017

## 예술이 삶이 된 한 전직 중학교 미술교사의 전기성의 실현

김수희 (헤세드 영어)

전주성<sup>1)</sup> (송실대학교)

---

---

### < 요약 >

---

---

이 연구는 20여년 가까이 교직생활을 하다가, 전직하여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결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한 중학교 미술교사의 경험을 탐색하였다. 질적연구방법론 중 생애사 연구를 이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개인 생애사에서 나타난 교사의 직업의 전환 및 전문성의 발달과정과 더불어 2000년대 초반 시작된 한국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전기학습, 경험학습적 틀에서 탐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생애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는 ‘제대로 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철학과 깊이가 있는 미술교육’을 위해 성실하게 연구하는 것, 문화예술 정책에 관여하여 힘쓰고, 일하는 모든 과정이 낱실과 씨실처럼 연결되어 전기성의 실현을 이루어 갔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생애사에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역사적 흐름이 녹아있다. 셋째, 연구참여자는 삶 속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무수한 실존적인 선택을 통해 진정한 자신이 되어갔다.

**주요어:** 한국문화예술교육정책, 전기성의 실현, 경험학습, 비판이론

---

---

1) 교신저자: 전주성, (06978) 서울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 E-mail: jnet@ssu.ac.kr  
논문투고: 2017. 8. 22 / 심사일자: 2017. 9. 12 / 게재확정일자: 2017. 9. 19

## I. 서론

인간은 항상 학습하고 변화하며 성장해 나간다(London, 2011). 삶 속에서 배우고, 삶으로부터 배우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다(Tedder & Biesta, 2007). 즉, 인간은 출생 이후부터 가정과 사회 안에서 성공과 실패, 성취와 시행착오 등의 다양하고 독특한 자신만의 경험을 하며 발전한다. 우리의 삶은 곧 경험이고 삶의 질은 경험의 질을 따른다(정민승, 2013).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한 학습’으로 개인은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깨닫고 해석하며 재구성함으로써, 그 경험 이전의 나와 경험 이후의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Jarvis, 2009).

이 연구는 한 전직 중학교 미술교사의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경험에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참여자는 20여년 가까이 매우 안정적인 직업인 교직생활을 하다가, 과감하게 전직을 선택하고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결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주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위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된 동기와 과정이 그녀의 전기성의 실현(realization of biographicity)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와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한 사람의 삶을 연구하는 것은 그의 삶속에 드러난 경험과 학습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루지 못한 꿈과 삶은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며 경험적 연구의 외연을 확장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이동성,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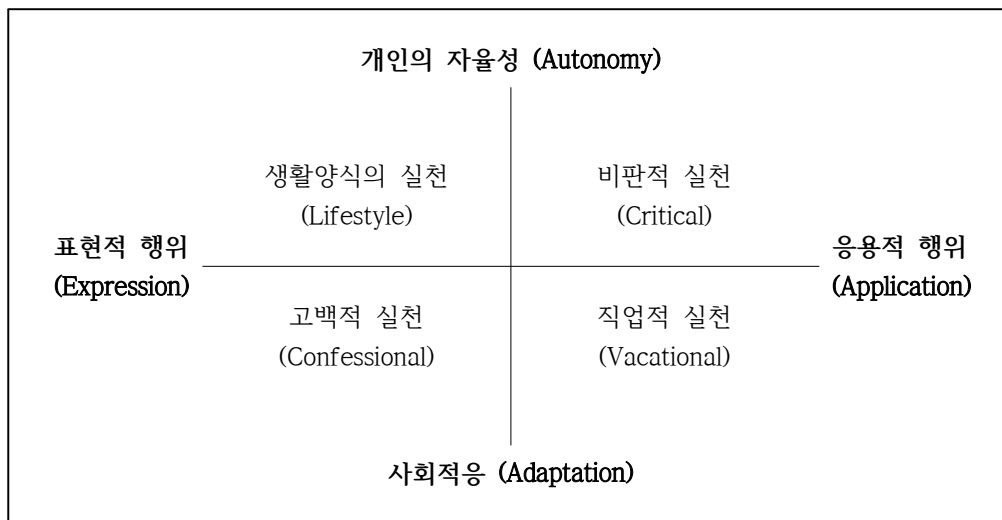
현재 교사들의 직업 전환이나 전문성 발달을 한 개인의 생애사(life history)적 측면에서 탐구하려는 학술적인 시도(김석례, 손민호, 2011; 김희연, 김은숙, 2013; 우지만, 2013)는 매우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삶을 사회문화 및 정치적, 역사적 맥락과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러한 점은 생애사 연구가 사회적 행위 주체인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보다 그 배경을 이루는 시간적 맥락에 주목하고, 내러티브의 사실적 정확성이 아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데 주된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이동성, 2015).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미술교사였던 연구참여자의 직업 전환 및 전문성의 발달과정, 이와 더불어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역사적 -도입기, 정착기, 전환기- 맥락을 생애사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깊이 있게 분석하고 성찰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삶과 학습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둘째, 연구참여자의 삶과 학습은 한국 문화예술정책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셋째,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이야기는 전기학습(biographical leaning)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 II. 이론적 프레임워크

### 1. 경험학습이론(experiential learning)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의 되어감’을 배운다. 그러나 이러한 배움은 단지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되는 것이 아닌 평생을 걸쳐 이뤄지며, 이러한 각자의 크고 작은, 독특하며 일상적인 경험의 결과로 비로소 우리가 되어간다. 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삶을 경험하는데,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며 또 다른 경험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Jarvis, 2009). Usher와 Bryant, Johnston(1997)은 경험학습이론의 한계, 즉 개인의 학습과정에 국한된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코드를 도입해 경험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하였다([그림 1] 참조). 학습이 개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것인지, 학습이 학습자의 표현 및 창조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적용과 응용을 통해 진행되는지에 따라 학습과정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정민승, 2010).



[그림 1] 학습경험 유형

출처: Usher, Bryant, & Johnston(1997), p. 106.

이 연구에서는 위의 네 가지 학습경험의 영역중 인간의 사적인 자기관리 능력이 공공화

되는 장면인 ‘고백적 실천’ 영역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특정 맥락을 개인이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학습이 일어나는 ‘비판적 실천’ 영역의 측면에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 가. 고백적 실천(confessional practices)

Usher 등(1997)은 인간의 자아(selves)가 이 세상에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자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은 단순히 그것의 실재(reality)를 발견하거나 드러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였다. 자아에 대한 개념은 의미심장한 힘을 가지며, 여러 자아는 이 개념과, 그와 관련된 논변적인 실천을 통해서 구성된다(Illeris, 2013). 또한 외부에서 부과된 규율 및 규제보다는 자기 통제, 자기 훈련을 통한 훈계, 즐겁게 힘을 실어주는 과정, 그러나 힘이 결코 결여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자기 개선과 자기 통제가 생긴다(Usher, Bryant, & Johnston, 1997). 고백적 실천은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고, 개인적으로 바람직하게 성장하며 경제적, 기능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수반한다(정민승, 2010).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자아의 고양과 자아의 개발, 자아의 조절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경험은 지식과 자신에 대한 가장 깊숙한 내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그 결과 사람들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생산적이고 능력 있는 개인으로 성장한다(Illeris, 2013).

#### 나. 비판적 실천(critical practices)

비판적 실천은 자율성(autonomy)과 적용(application)에 주어진 특별한 의미를 통해 작용한다. 비판적인 실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율성은 생활양식의 실천(lifestyle practices)에서 나타나는 자율성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생활양식의 실천 영역에서의 자율성은 욕망을 키우고 소비를 통해 차이를 나타내는 식으로 표현을 지향한다면, 비판적 실천 영역에서는 기존의 테크노-소셜 질서(techno-social order)에 대한 적용으로의 학습의 적용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과 사회 변화(self and social transformation)에 대한 학습의 적용이다(Illeris, 2013). 자율성을 궁극적으로 발견 할 수 있도록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Usher, Bryant, & Johnston, 1997). 경험학습은 자신에 대한 봉사와 사회적 고양과 변혁에 있어서 개인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훈련하는 전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지식으로 이끄는 어떤 것이기보다는 지식 자체로 간주되어야 한다(정민승, 2010).

## 2. 전기학습(biographical learning)

지난 30년 동안 성인 교육에 대한 연구 분야는 전기(biography) 및 생애사 접근법(life history)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다(Alheit, Bron-Wojciechowska, Brugger, & Dominice, 1995; Alheit & Hoerning, 1989). 전기학습이란, 개인적 주체성과 사회적 조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의 생애과정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Illeris, 2013). 전기성(biographicity)은 급변하는 현대인의 경험으로부터 ‘의미와 진정성(authenticity)’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일과 학습 등 다양한 경험에 대한 현대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Tedder & Biesta, 2007). 이는 전통적인 형태의 연구에서 소외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표현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그 이야기를 통해 학습 및 교육 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Tedder & Biesta, 2007). 또한 학습의 의미를 제도적 정의로 제한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학습과정에서 정서적, 구체적, 사전 반사적, 비인지적 측면과 함께 인지적이고 재귀적인 차원의 학습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전기적 전환(biographical turn)’이 생성된다(Tedder & Biesta, 2007).

질적 연구 방법 중 전기 및 생애사 접근 등장의 특징은 학습과정에 대한 전기의 영향에 대한 관심을 모두 포함하는 관심에서 시작된다(Alheit, 1995). 때문에 전기적 연구(biographical research)는 학습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넓혔다(Alheit, 2009). 학습은 주로 언어를 매개로 경험을 해석하기 위한 문화적 지식 체계 또는 경험자체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 포함 된 즉각적인 경험과 관련된 주관적인 과정이라는 주장이다(Alheit, 2009).

학습은 전기학습의 풍요로움을 통해 지식의 창고를 채우는 단순한 역할로 보는 것이 아닌, 보다 전체론적 방법(holistic way)으로 재조명하였다(Hodkinson et al., 2004). 이것은 개인의 직업과 관련 학습에도 적용되며 전체의 경력과 삶의 맥락에서 학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개인적 정체성을 발전하기 위한 투쟁에 사용 된 다양한 경험과 실존적 선택을 만들기 위한 전기학습은 다양한 분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삶의 경험에 대한 상호 연결된 이해력을 제공한다(Hodkinson et al., 2004). 전기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전기학습을 능동적인 주체에 대한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성취로 정의하며, 개인적 일관성, 정체성, 의미를 생기게 하는 방식으로 해석한다(Alheit & Dausien, 2002). 자신의 경험을 반사적으로 조직하며 삶의 역사와 행동을 인도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실행 가능한 삶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Alheit & Dausien, 2002).

이 연구에서는 전직을 선택한 중학교 미술교사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 전기학습

(biographical learning)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경험학습이론에 근거하여 그의 삶을 Usher 등이 언급한 고백적 실천 (confessional practices)과 비판적 실천(critical practices)을 어떤 방식으로 영위해 나갔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론

#### 1. 연구의 설계: 생애사 연구

이 연구는 개인적 삶의 특징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인 생애사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이동성, 2015).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사회문화적 요인에 연결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구조를 이해하는 문화연구의 일종이다(이동성, 2015). 생애사는 한 개인의 경험에 대한 역사로서 그 개인의 관점, 삶의 상황, 세계에 대한 개인의 이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자서전, 전기, 일기, 편지 등과 같은 일반적 범주로서의 개인에 관한 기록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강민수, 문용린, 2007). 그러나 생애사 연구는 연구자의 개입에 의해 얻어진 연구 대상자의 자기반성적인 사례를 기초로 연구 대상과 연구자 사이에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개인에 관한 기록과 구별된다(강민수, 문용린, 2007). 생애사 연구가 연구대상자와 연구자 사이에서 구성된다는 것은 그것이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강민수, 문용린, 2007). 이는 개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다 넓은 사회적 조건 혹은 맥락을 발견하는 창이 된다(Cole & Knowles, 2001). 따라서 생애사 연구방법은 개인의 생애사를 매개로 하여 개인과 사회, 주관과 객관, 행위와 구조 등 사회학의 고전적인 이분법을 넘어서 사회구조를 재구성 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이희영, 2005). 생애사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사는 사회적으로 해석한 삶의 이야기이다(김영천, 한광웅, 2012). 생애사연구는 문화, 정치, 가족, 종교 영역과 같은 맥락의 영향 속에 자리 잡은 삶을 연구 한다(김영천, 한광웅, 2012). 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고리 속에서 삶의 과정을 탐구하는데 효과적이다(이동성, 2015). 또한 생애사는 사회적 제약이나 삶의 기회와 전환점 등 일련의 시간적 사건에 참여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슨 선택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과 상호작용이 현재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시간성을 강조한다(한경혜, 2005).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건들은 맥락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맥락(context)이란 물리적 및 제도적 환경뿐만 아니라, 부모, 멘토, 동료, 또래 등과 같은 중요한 타자를 포함한 개인 간 환경과 사회적 및 문화적 환경을 의미한다(이동성,

2015).

둘째, 생애사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다(김영천, 한광웅, 2012). 생애사는 참여자의 주관적 이야기를 재해석하여 다시 이야기하는 서사구조에 기초한다(한경혜, 2005).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해석하고 서술할 때, 자신들의 고유한 이해방식과 의미부여 방식을 드러낸다(이동성, 2015). 이 때 핵심은 주관적 이야기의 사실적 정확성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자기-재현의 집합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의 실제적 사과와 행위는 단선적 시간보다는 해석과 재해석의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내러티브적으로 구성된다(Dhumpath, 2000).

셋째, 생애사 연구에서는 관계성이라는 방법론적 특징이 강조된다(이동성, 2015). 생애사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의 친밀성과 진정성에 기초한 관계성을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친밀성이란 공동적 배려와 우정의 질을 의미하며, 진정성이란 연구참여자에게 헌신하려는 연구자의 책임감을 의미한다(이동성, 2015).

## 2. 연구참여자

김현경(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해 가명 사용)은 약 18년 4개월의 오랜 중학교 미술 교사 경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교육의 실천과 옹호를 위하여 중학교 미술 교과서 집필, 미술교육발전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직 역임하였고, 미술교육의 정당성과 발전을 위한 다수의 논문 발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김현경은 10년간 K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관련된 연구 및 지원업무를 하였다. 그녀는 2016년 2학기 주연구자가 수확하고 있는 S대학교 박사과정 개설 과목인 ‘시민문화예술교육행정론’의 강사로 초빙되었다.

중학교 교사로서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한국 예술교육의 흐름과 방향, 정당성, 예술교육의 중요성, 실천적 방법론을 연구하고 학위를 취득하여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애써온 모습이 김현경의 강의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이에 주연구자는 그녀의 인생에 담긴 전기성(biographicity)에 관해 연구하고 싶은 호기심과 열망이 생기게 되었다. 본 연구는 생애사 연구를 통하여 김현경의 삶 속에서 드러난 경험과 학습의 의미, 그녀가 실현하기 위한 꿈과 삶은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작용하는지 탐색하였다. 그녀가 살아온 삶 속에서 느껴온 사회적인 제약은 무엇이었으며, 삶의 기회와 전환점 등 일련의 사건과 일화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였으며, 어떠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는지 통찰해 보았다. 또한 김현경의 미술교사로서의 경험에 담긴 교사의 직업 전환 및 전문성의 발달과정

과 2000년대 초반 시작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 3. 자료수집과 분석

이 연구를 위한 생애사 자료는 주로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통해 수집하였다. 심층 면담 전, 자료 수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예술교육 철학과 가치관이 기술되어 있는 학술지 논문, 번역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 박사학위 논문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수강하며 래포(rapport)를 형성하였다. 심층면담은 2016년 10월에서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인터뷰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장소(K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에 위치한 회의실, 도서관, 커피숍 등)에서 진행되었다. <표 1>과 같이 인터뷰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다. 2차 인터뷰에서는 연구 목적과 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었으며 3차와 4차에 걸친 인터뷰에서 현재 자신의 삶속에서 직업과 학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싶은지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나누었다.

<표 1> 심층 인터뷰 내용

면담 차시	면담 목표
1회차 면담	연구참여자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 (어린시절 어떻게 미술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미술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미술 교사가 된 동기, 미술교사에서 문화예술정책에 참여하게 된 동기 등)를 통해 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함
2회, 3회차 면담	연구 목적과 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기 위한 면담으로 1회차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중요 포인트, 이벤트에 대한 질문
4회차 면담	지금 현재 자신의 삶 속에 직업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싶은지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나누고, 지난 2회차 면담 전사 및 분석 하며 궁금했던 점에 대한 추가질문

이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에 따라 연구자가 준비한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답변 내용을 녹취하여 전사처리 하였다. 전사된 데이터를 통해 연구문제의 답을 도출해 내는 과정은 Creswell(2015)이 제시한 내러티브연구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며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고 코딩을 하는 과정을 거친

후 연대기를 정리하고 주요사건(critical incidents) 위주로 재분석하고 도출된 자료를 시각화 하였다. 분석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질적연구의 전문가인 대학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아 자료 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전사된 자료, 생애사를 정리한 표를 보여줌으로써 1차 구성원 검증(member checking)을 받아 사실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연구의 신빙성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질적연구의 전문가인 박사 1인의 외부감사(audit)를 통하여 이 연구의 연구결과, 해석, 결론이 자료를 바탕으로 풍부하게 이루어졌는지 (Creswell, 2015)를 평가받았다.

<표 2> 내러티브 연구 자료분석과 제시

자료분석과 제시	내러티브 연구
자료정리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 정리
읽기와 메모하기	텍스트를 모두 읽고, 여백 노트를 만들고, 1차 코딩을 실시
자료를 코드와 주제로 기술하기	이야기나 경험한 것을 기술하고 연대순으로 배열
자료를 코드와 주제로 분류하기	① 이야기를 확인하기 ② 발현된 현상을 파악하기 ③ 맥락적인 재료를 확인하기
자료해석	이야기의 더 큰 의미를 해석
자료 제시와 시각화	과정, 이론 그리고 독특하거나 일반적인 생활의 특성에 초점을 둔 서술을 제시

출처: Creswell(2015)

#### 4. 연구자의 주관성

현재 주연구자는 대학원에서 평생교육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연구자는 인간이 살아가며 꼭 이루고자하는 꿈에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관심이 많았다. 주연구자는 2004년 영어영문학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유학을 꿈꾸었지만, 좌절 되었던 경험이 있다. 굴곡진 삶은 꿈을 좌절시키거나, 더디 갈수도,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게 한다. 주연구자는 국내대학에서 그 꿈을 이루었고 더 큰 꿈을 평생학습을 통해 실현해 가고 있다. 그래서 2006년, 미국 유학 대신 온전히 영어로만 수업이 진행되는 숙명여자대학교 TESOL과정을 선택하고 ‘국제영어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2010년, 동대학원에서 TESOL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3년, 숙명여자대학교 P&L TESOL 과정을 이수하여 ‘어린이놀이영어전문가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업의 끈을 이

어왔다. 주연구자는 학업을 통해 배운 다양한 영어교수법을 학생들에게 적용하며 영어강사로써의 실력을 인정받은 후 영어 학원을 개원하여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6년에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주연구자도 S대학교 평생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수학 중에 있다. 이처럼 주연구자는 꾸준히 학습과 교수를 이어오며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다.

주연구자는 김현경의 강의를 청강 하면서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열정적으로 한국 문화예술 정책에 앞장서 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였는지 호기심이 생겼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중학교 미술교사로서 학업을 병행하며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녀의 일과 육아, 학업의 과정이 주연구자와 많이 닮아있었기에 그녀의 삶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또한 그녀의 성인학습 과정은 그녀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어떻게 끝까지 포기 하지 않고 그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 그녀의 삶의 이야기에 참여해보고자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김현경의 생애사 요약

김현경은 초등학교 선생님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2남 1녀 중 둘째로, 1963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장남인 오빠에 비해 그녀는 집안의 관심이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 덕분에 그녀는 부모님의 제약이나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예술적인 재능과 끼를 표현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공부 잘하고 활발한 성격인 아이로 리더십을 인정받아 반장을 도맡아 하곤 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교내 회화반에서 처음으로 그림에 흥미를 느끼고 사생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면서 미술을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중학생이 되자 미술부에서 종일 미술대회를 준비하며 그림을 그리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다.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중엔 예술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로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그녀는 미술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고, 홍대 미술대회에서 부산지역 참가자 중 3위를 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역시 아버지의 반대로 미대 진학은 좌절되고 말았다. 대신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하며 실력을 인정을 받아 1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 4학년까지 장학생으로 수학하였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서 중학교 미술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미술을 가르쳤다. 자신의 예술가로써의 꿈을 아이들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미술 수업에 몰입하며 그녀가 지도한 학생들이 3년 연속 ‘부산 공예 중학교 주최 실기대회’에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리고 미술교사 재직 중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미술교과서 집필진으로 제안을 받고 미술 교과서는 전국의 아이들이 볼 책이며 미술 교육의 바이블이라는 생각으로 열정을 다해 미술교과서 집필에 임하였다. 그녀는 미술교과서가 무책임한 집필진에 의해 5,6차 교과서를 단순히 베끼는 식으로 제작된다고 여기고 자신의 꿈인 예술가에서 ‘미술교사의 자존심 회복’으로 바뀌게 되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 과건교사를 신청하였다. 시험에 합격하면 교사로서 급여를 받으며,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인천지역에서 전 교과 지원 교사들 중 3명의 교사를 과건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2년간 주말부부로 지내며 자녀들만 데리고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공부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술교사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학업에 정진하고 웹기반 미술교사 학습공동체 구축 방안에 관한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김현경은 교직생활을 휴직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였다. 주위에서는 휴직을 하면 금전적인 손해도 많을 뿐 아니라,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도 늦어지게 되니, 장학사 시험을 보라는 권유를 하곤 하였다. 그렇지만 김현경은 금전적인 이익이나 승진 보다는 오로지 미술교육 연구자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학령기의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2004년, 박사과정을 마칠 즈음 정부의 ‘음악, 미술, 체육 등급 폐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김현경은 전국의 미술교사들을 규합하여 ‘미술교육발전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공청회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폐지 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교사경력 18년 4개월 만에 중학교 미술교사를 퇴직하고,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문화 예술 교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념 아래 설립된 문화체육부 산하 공공기관- K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정책분야 연구원으로 입사하였다.

김현경은 K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초기부터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문화 예술교육 선도 학교 운영 지원 사업, 예술 꽃씨 학교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 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사업 등을 계획하였다. 그녀는 2010년 UNESCO 세계대회를 준비하며 ‘서울 어젠다: 예술 발전 목표’ 초안 작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6년, 10년간 몸담아 일한 K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퇴사하였다. 퇴사 후, 그녀는 오랜 시간 꿈꾸어오던 전업 작가가 되어 한국형 성모자상(聖母子像) 조형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녀의

조형 작품은 서울 고척당성당, 경북 안동 봉하성당, 안동 교구청에 설치되었다.

김현경은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10년간의 연구, 성과 등을 집필하고, 정책 포럼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여고시절,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은 이후 그의 삶은 언제나 예술과 함께였다. 전업 작가의 꿈이 좌절되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과서를 집필하며 ‘미술교사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을 계속하였다. 또한 ‘한국 예술교육의 자존심’으로 확대된 그녀의 꿈을 위해 한국의 예술교육 정책에 관여하여 일하기까지 예술가로서 현재진행형의 삶을 살고 있다.

## 2. 김현경의 청소년기에 드러난 ‘부당함에 대한 저항’

우리가 삶속에서 비판적인 사고(critical thinking)를 한다는 것은 믿고 행하는 것을 평가하는 성찰적 사고를 한다는 의미이다(Merriam & Bierema, 2016).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 행동(critical action)이 뒤따르게 된다. 이는 일단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 선택지(options)를 비판적으로 평가한 후 시의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Merriam & Bierema, 2016). 김현경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나 주위사람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에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변화를 이끌어내곤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 담임선생님은 학교생활 외에 과외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 때 그에게 과외를 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들을 차별하여 대우하였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침묵하고 있을 때, 김현경은 담임선생님께 과제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것으로 인하여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 앞에서 뺨을 맞는 수치를 경험하였다. 그 후, 선생님은 이러한 일이 있고, 과외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 냈던 교과서 베껴 쓰기 과제를 더 이상 내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현경은 세상에는 부조리가 존재하며, 그 부조리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5학년 때 시련이 왔어요. 선생님이 과외를 우리 친구 집에서 하셨어요. 저는 그 과외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내가 생각하기에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숙제를 과하게 내주셨어요. 그 때 국어책 한권을 얇은 노트에 베끼는 거였어요. 이걸 팔만 너무 아픈데... 과외를 안 하는 애들에게만 그런 숙제를 여러 번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 다른 숙제를 내달라며 사시나무 떨 듯 떨면서 말씀드렸어요. 그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는데, ‘왜 내가 너를 이야기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냐?’면서 제 뺨을 때리셨어요. 제가 그 선생님으로부터 사회의 부조리함을 최초로 느꼈어요. 이후로 힘

있는 사람이 잘못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그 숙제를 이후로 안 내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께서 사회의 부조리, 힘 있는 자의 횡포를 처음 경험한 이 사건은, 압전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따르던 여학생의 삶에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 이처럼 김현경의 비판적 실천(critical practices)을 통해 하나의 확실하고 분명한 전환적 잠재력이 있고 발현되었음을 보여준다(Illeris, 2013). Ursher 등(1997)은 인간은 비판적 실천을 통해 기존의 자율성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사회변화에 대한 적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현경은 담임선생님께서 내주셨던 부당한 숙제를 침묵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당당하게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김현경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여고생으로 성장한 김현경은 미술부장으로 리더가 되어 다양한 미술부 행사, 미술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였다. 그때,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컸던 한 수학선생님의 발언을 통해 김현경은 ‘나’ 중심의 사고에서 ‘우리의 미술부’로 인식이 전환 및 확대되었다. 수학시간에 지각을 한 미술부 학생들을 보며, 수학 선생님께서 “공부 못하니 미술로 대학 가려는 아이들이 이제는 지각까지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해들은 김현경은 미술부의 자존심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기 위해’ 선택하여 준비하는 것이 미술, 음악, 체육이라는 편견에 맞서기 시작했다. 미술부장이라는 미술부의 대표성을 띄고 있던 그녀는 선생님의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였다. 김현경은 고백적 실천(confessional practices), 즉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개인적으로 바람직하게 성장하며, 성숙하는 과정을 선택한 것이다(Illeris, 2013). 초등학교 5학년 당시 “그런 숙제는 내지 마세요.” 라고 선생님의 잘못을 지적하였던 것에서 성장, 발전하여 ‘그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어.’ 라고 생각한 뒤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노력하였다. 미술에 집중했던 그녀가 예체능을 전공하는 학생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맞서기 위해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수학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학급의 수학 부장이 되며, 실추되었던 미술부의 명예를 되찾는 성과를 이루는 긍정적인 경험에 이르게 되었다.

2학년이 되면서 미술부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정말 공부 안하고, 머리 도 특이하고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도 ‘우리 미술부’ 인거예요. 한경미라고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미술부 친구가 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공부 못하는 것들이 미술을 한다.’ 라고 하셨대요. 그 친구가 지각 많이 하고 자율학습 안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친구를 꾸짖어야 되는데,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미술을 한다.’ 고 하신 거예요. 제

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 (웃음). 그러면서 이제 수학공부를 시작했어요. 수학을 막 치고 나가니까 미술부장이면서, 수학부장도 했어요. 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원리를 되게 쉽게 설명해줄 수 있었어요. 미술부장이면서, 수학부장도 하면서, 명예가 회복 되었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미술 한다는 것이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죠.

### 3. 김현경의 성인기 삶을 통해서 본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흐름과 역사성의 의미

#### 가. 예술가를 꿈꾸던 김현경, 예술운동가가 되다.

생애사는 자기반영성을 강조하는 성찰을 중요하게 여기며 주관적인 자서전이나 1인칭 화자의 시점에서 개인의 삶에 대한 일대기를 1인칭 화자의 시점에서 서술하는 구술사 등과는 달리, 개인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의 시간성을 통해 사회구조를 포착하여 기술하는 질적연구 방법이다(김영천, 한광웅, 2012). 연구참여자가 부산에서 중학교 미술교사로 발령을 받던 24세부터(1987년) 전업작가의 꿈을 이룬 54세(2017)까지의 30년의 생애사적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별히 한국의 미술교육 역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한 개인의 비판적 사고방식, 올바른 방향과 철학의 정립을 위한 노력들이 한국의 미술교육, 더 나아가 예술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바꾸어 놓은 사건에 대해 깊이 있게 기술하고자 한다.

예술가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중학교 미술 교사가 된 김현경은 24세부터 학생들과 교감하며 ‘아이들을 통해 자신이 작품을 한다.’ 는 마음으로 미술수업에 몰입하였다. 열정적인 수업을 인정받아 3년 연속 ‘부산공예중학교 실기대회’ 단체 우승 및 지도교사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던 중 1997년 교육부 제 1997-15호로 제 7차 교육과정이 고시되면서 7차 교육과정 중, 중학교 미술교과서를 집필하는 기회를 얻었다. 김현경은 미술교과서 집필 방식에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실망하였지만, 그녀가 맡은 단원 뿐 아니라 다른 단원까지 마치 예술 작품을 하듯 최선을 다해 집필하였다.

미국 미술교과서는 제가 직접 번역을 하고, 일본 교과서는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한테 번역을 부탁했어요. 보니까 일본교과서는 아주 해상도가 높고, 텍스트는 짧으면서도 깊은 철학을 담고 있었어요. 아름답고, 시적이고, 지식을 다루지는 않아요. 미국교과서는 미술사적 의미,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 되는가 발전해온 역사 등이 다 나와 있었어요. 수채화 한 단원을 하더라도 모든 총체적 지식을 다루고 있었지요. 교과서만 보면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매우 자세히 실행하는 방법까지 다 제시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예요. 그림들도 실려 있는데, 왜 실렸는지, 이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관련된 최고의 예술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건지. 철학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술 교육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처럼 그녀가 가진 비판적인 사고는 자기 자신의 가정, 믿음, 행동을 진단하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Merriam & Bierema, 2016).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자신이 가진 확신에 대해 지적이고 기술적이며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Behar-Horenstein & Niu, 2011). 즉, 김현경은 자신이 풀어야 할 문제이자 도전 과제인 ‘미술교과서 집필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을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다(Bensley, 2010). 그래서 ‘제대로 된 교과서 집필’을 위해 한국, 미국, 일본 교과서의 특징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4, 5, 6차 한국의 미술교과서를 분석하며 장점은 부각 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며 예술적 철학이 담겨 있는 미술교과서 집필을 위해 노력하였다.

너무 허술하게 교과서라는 것이 만들어 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찌면 이럴 수 있나. 저는 하루 종일 미술에 대해 고민하고 또 믿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작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집필진들이 7차 교육과정을 집필 하는데, 6차 교과서를 갖다 놓고 베끼는 식으로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저는 제 단원 이상의 것까지 작품을 하듯이 몰입 했어요. ‘미술 교사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에 대해 공부를 했어요. 공부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김현경은 교과서 집필을 하며, 특히 출판사와 갈등이 깊어졌다. 작업을 하면서 김현경의 의견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고압적 자세의 출판사 관계자와 마찰을 겪으며, 그녀에게 ‘학위’가 없어서 자신의 의견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라는 남편의 현실적인 조언을 듣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의 미술 교육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리고 ‘영터리 미술교과서의 틀’을 바로 잡겠다는 새로운 도전과제가 생긴 것이었다. 김현경의 비판적 사고와 도전의식은 대학원과정 진학과 한국미술교육을 바로 잡는 토대가 되었다.

작업을 하면서 출판사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데, 출판사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했더니 제가 학위가 없더라고요. 학사학위 밖에 없는 거예요. 교수님은 박사 학위가 있고……. 남편이 내게 ‘당신이 경험하고 하는 말에 힘이 실리려면 학위가 있어야 한다.’ 조언 하더라고요. 나는 그 차이를 발견 못했는데,

남편이 ‘사회에서 학위가 있다는 것, 교수직에 있다는 것은 바로 권위가 있다는 거다. 당신은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지 않느냐?’ 라는 현실적인 지적을 하더라고요.

김현경은 2003년 40세가 되던 해에 박사과정 입학을 결정하며 ‘한국의 미술교육의 자존심을 지키기’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과감히 교사직을 휴직하였다. 그녀에게 대학원에서의 석박사과정은 마치 음식과 같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학업은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며, 삶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자극으로써, 한 개인이 더 넓은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Jarvis, 2009).

김현경이 박사과정을 시작한 2003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음악, 미술, 체육 등급 폐지 검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예술분야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미술교육발전공동대책위원회 활동백서, 2003). 학교 교육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주지교과 위주의 교육이 주류를 이루면서 정작 학생들의 정서와 감성교육에 핵심이 되는 예체능 교육은 비주류로 분류되었다. 교육부가 제안한 ‘음미체 등수 평가 폐지안’은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 교육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으로 일선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분노와 절망감에 차게 하였다(미술교육발전공동대책위원회 활동백서, 2003). 이에 김현경은 전국의 유치원, 초등, 중등, 대학의 미술교과 관련 총 40여개의 단체를 규합하여 ‘미술발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하고 사무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저항과 규탄에 앞장섰다. 공대위 사무국장직을 수행하며 14차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예술교육자대회를 기획, 실행하며, 모금운동을 계획하였다([사진1], [사진2] 참고). 또한 그는 10만 서명운동을 벌이며, 다양한 예술교육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통해 교육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저항하였다.

박사과정 동안 뭐가 있었냐면 ‘교육부 음미체 등급 폐지 공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을 내세웠어요. 학생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국어, 수학 등은 강화하고 음악, 미술, 체육 교육은 등수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지요. 근데, 주지교과 중심의 입시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음, 미, 체 등수평가를 없애면 아이들은 그 시간에 절대로 집중 안 해요. 이것은 음악, 미술, 체육 말살 정책인거예요. 정말 본질적으로 잘 하려고, 평가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음, 미, 체를 방과 후로 하겠다. 오후시간에 배치하겠다. 다시 한 번 미술교사로서 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김현경은 ‘음미체 등급 폐지 정책’이라는 커다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청회, 서명운동, 정책 질의 등과 같은 교육부와의 의사소통을 하려고 애썼다. 그녀와 전국의 미술교사

들이 마음으로 바랐던 ‘미술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희망은 그녀가 벌인 공청회와 서명운동 등은 안정된 교사들의 안일한 마음을 깨우는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그리고 김현경의 전국 미술교사들과 규합하여 정당한 의사소통을 위한 피나는 노력은 전국 미술교사들이 ‘미술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場)이 되었다.

그 정책이 발표됨과 동시에 제가 미술교육발전공동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전국 미술교사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어요. 음악, 체육 쪽도 같이 모였지요. 제가 사무국장을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교사들이여! 미술교육이 정상화 될 때까지 우리가 붓을 꺾자! 우리가 미술교육이 사라지는 부당한 이 정책에 대해 반대를 분명하게 하자! 더 이상 시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서명을 받고, 논리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미술교육자대회도 한번 서울에서 하였는데 그때 600여명이 모였죠. 공청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공청회를 할 때 제가 단상에 뛰어올라가서 마이크 뺏고 그랬어요. 미술교육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죠.

전국 미술교사들의 적극적인 저항 운동으로 교육부의 ‘음, 미, 체 등급 폐지 정책’이 폐기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2004년 2월 문화관광부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문화예술교육과’를 신설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제도를 구축하였다. 세상은 인간의 독창성, 대담함, 용기, 권위에 대한 도전 등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누군가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도전과 저항이 필요했다. 김현경과 전국 미술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도전정신과 저항을 보여준 것이었다. 아이들에게 미술교육을 통해 희망을 가르쳐주는 교사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흔들리는 예술교육을 바로 잡으려고 애썼다. 김현경은 그러한 미술교육의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

2004년도에 문화부에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미술교육발전공동위원회 이념으로 교육부에 의견서를 보냈죠.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제대로 해 달라.’ 그리고 공식 항의 방문을 했어요. 공개질의서를 보내고요. 교육 주무부서가 아닌, 문화부에서 교육정책을 만들 때 제가 담당자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교육을 이야기 할 때와 미술교육자들이 교육을 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 우리들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현장의 학생들이 눈앞에 보인다. 당신들은 학생들이라는 존재가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교육 정책을 제대로 해달라’고 이야기 했어요. 문화부에서 예술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 정책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경각심과 압박을 주는 역할을 했어요. ‘음, 미, 체 등급 폐지 정책’은 폐기되었고 저는 승리자가 되었죠.



[사진1] 전국미술교사대회



[사진 2] 전국 음·미·체 교사대회

김현경은 ‘음미체 등급 폐지 정책’ 폐기의 성과를 거두고, 미술교육발전공동대책위원회 활동백서를 발간 후 사무국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한 뒤 잠시 한국을 떠났다. 2005년 미국에서 돌아온 그녀는 ‘학교 복직’ 과 ‘K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는 학교에서 1년 4개월 정도 더 근무하면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도입기(2004~2006)가 되는 중요한 시기에 예술교육 정당성 확보와 정책당국(문화관광부)이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K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때 진흥원에서 저에게 입사 지원을 해달라는 제안이 왔어요. 진흥원 입사 지원 아니면 학교

로 돌아가는 거죠. 한 가지 걸리는데, 그때 제가 교직 경력이 18년 6개월이었어요. 1년 4개월이 더해지면 명예퇴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을 받으면 좋잖아요.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복직을 안 하고 진흥원으로 왔어요. 미술교육에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나 하나라도 가야지. 해봐야지.’ 생각했어요.

그녀는 K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초, 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방안 연구에 참여하였다. 그녀의 연구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제도의 시작점 되었고, Unger(2012)가 말했듯이 미술교육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에, 김현경은 현재의 조건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는 존재로서 현재를 살아가며, 앞으로의 미술뿐만 아닌 예술정책 전반을 위한 미래지향적 삶을 살았던 것이다. 김현경과 같은 개인의 노력이 탄탄한 밑바탕이 되어 2006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시행되고 곧이어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가 설립되며,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시범 운영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이 확보되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도입으로 문화부처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수렴을 통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김현경이 43세 되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되며 정권이 교체되었다. 김현경은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의 지속적인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 옹호 전략 마련과 대응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또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UNESCO 예술교육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하여, 2010년 차기 대회의 한국개최의사를 공식 표명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녀와 동료들이 제안한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발전목표(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가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이로써 예술교육의 중요성과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한 UNESCO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는 예술교육이 처한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UNESCO가 각국 정부의 실천과 상호협력을 촉구하게 될 것인데,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는 그것을 위한 실천적이며 실질적인 지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경이 한국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교사로서의 안정과 보장된 지위를 포기하고 10년간 열심히 정책연구에 몰입하고 활동한 결과, 한국의 예술교육은 세계 각국의 정치적 지지를 받으며 그 정당성과 역사성을 보장받게 된 것이었다. 그녀의 꿈은 ‘미술부’의 자존심 회복에서 ‘미술교사 자존심 회복’으로 발전한 후 또 다시 ‘한국 예술교육의 자존심 회복’으로 확대 성장하며 그 지평과 역량을 넓혀나갔다.

K문화예술진흥원에 있던 10년은 정말 보람되었던 것이 많아요. 정책의 기틀을 다졌으니까요.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정립을 위해 일을 했고, 담론을 만들었지요. 2010년 UNESCO 세계대회를 준비하면서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대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엄청나게 했죠. 문화예술교육주관이 선포되는 것 까지 했고요. ‘서울 어젠다: 예술발전목표’ 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초안 작업을 했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UNESCO 본부는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싸우면서, 통과가 되었어요. 이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세계대회에서 그 역사성을 담보하게 된 거죠.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 나. 조형예술가로 새로운 도전, 그 날개를 달다.

UNESCO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년 뒤, 김현경에게 ‘예술가’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기적처럼 찾아왔다. 2012년 그녀가 49세 되던 해, 가톨릭 신자였던 그녀에게 ‘한국의 어머니로서의 성모상’을 제작해달라는 신부님의 부탁을 받았다.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한 그녀의 예술혼을 불태울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기성(biographicity)의 능력, 즉, 대학시절 하루에 다섯 끼를 먹으며 흠과 돌을 깎아 작품에 몰입하며 건강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연마한 조소 실력을 대학 졸업 이후 25년 만에 발휘할 때가 온 것이었다. 그녀는 서울과 안동을 오가며 1년 6개월 동안 ‘한국형 성모자상’을 대리석으로 조각하며, 조형작가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안동 교구청과 서울 고척동 성당, 안동 봉하 성당에 성모자상을 제작하고 직접 기도문을 써 넣으며 그녀는 정신적인 안정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사진 3] 참고). 김현경의 오랫동안 예술을 위한 저항 운동, 정책 발의, 연구 등으로 지친 몸과 마음은 그녀가 오랜 시간동안 원했던 예술-조소 작업을 통해 치유 되었다.

제가 이렇게 인연이 되고나서 1년 반 동안 주말이 없었어요. 주말 내내 작업실에 내려가서 대리석 작업을 하는데, 대리석에서 검은 선이 나온 거예요. 겉에는 없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 발견 된 거예요. 다시 제 돈을 들여 1,500만원을 들여서 재구입을 하고 다시 작업을 했어요. 새로 작업한 대리석상을 서울에 있는 고척동 성당에 완성해서 놓았어요. 그리고 80% 완성된 검은 선이 나온 성모상은 안동의 봉화성당에 놓게 되었죠. 어쨌거나 내가 조각가가 되려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예술교육정상화에 몸을 담았었잖아요. 이제 제가 다른 것이 아닌 성물(聖物)을 조각하면서,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생각하고 어떤 보수도 받지 않았어요. 덤으로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도 침침해지고, 정말 이제 힘이 없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나 봐요. 작업을 하면서 정신적인 회복, 명예로운 회복이 있었죠.

이처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기성의 능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바로 전기학습이며, 김현경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내며 ‘진정한 자기’를 찾아 갔다(전주성, 2012). 그녀는 원했던 예술고등학교나 홍익대 미술대학 진학을 못하게 말렸던 부모님을 원망하며 시간을 허비 하지 않았다. 또한 대학 졸업 직후 이루지 못했던 ‘전업 작가’의 꿈에 연연해하거나 이루지 못한 삶에 대하여 비관하지도 않았다. 다만, 사범대 졸업 후 미술교사로서 교육과 미술 교과서 집필을 그리고 한국문화예술 전반의 근간이 되는 정책발의를 통해 예술을 실현하였다.



[사진 3] 김현경이 조각한 안동 봉하 성당 성모자상

그녀가 번역한 책 ‘예술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처럼 그녀의 삶은 자체가 예술이 되었던 것이다. 김현경은 자신의 전기(biography)에서 구조적으로 처한 사회문화적, 개인적 한계의 틀 속에서 인내하고, 준비하고, 배움의 과정에 자신을 던지고, 마침내 ‘전환’을 이뤄내며, 또 다른 새로운 ‘전환’을 꿈꾸는 성장의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다(전주성, 2012).

## V. 결론

본 연구는 18여 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전직을 선택하여 미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결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전직 중학교 미술교사의 삶을 전기성의 실현(realization of biographicity)이라는 측면에서 탐구한 것이다. 김현경은 학창시절부터 자신이 가진 천부적인 예술적 재능을 ‘미술부’ 활동을 통해 펼쳐나갔다. 그녀는 성인이 되어 중학교 미술 교사로서 학생들을 통해 예술을 실현하였으며, 더 나아가 한국

미술교육과 예술교육 정책 수립에 힘쓰며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선택과 실현을 해나갔다. 김현경의 삶을 통해 이 연구는 전기학습의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김현경의 삶은 매 순간이 전기성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예술가가 되어 예술 학교를 세우는 꿈을 가지고 학창 시절 내내 열심히 그림을 그렸지만 ‘딸은 여상이나 사범대를 나와 취업하거나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던 부모님의 바람으로 예술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다. 비록 예술가는 아니지만, 미술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통해 자신의 꿈이 실현된다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생들을 위한 미술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석사 및 박사과정을 통해 미술교육을 위한 학습과 연구에 몰두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해갔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정당성 제고에 관한 소론(2012), 미술교육을 둘러싼 문화적 쟁점의 비교(2013), 문화대응적 수업을 위한 미술교사 교육방안 연구(2014) 등의 논문을 발표하게 이르렀다. 그녀의 꾸준한 학업으로 인해 예술교육의 정당성을 학문으로 증명할 수 있는 탄탄한 실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의 표현처럼 ‘엉터리 미술 교육’이 아닌 ‘제대로 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철학과 깊이가 있는 미술교육’을 위해 성실하게 연구하는 것, 문화예술 정책에 관여하여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에 힘쓰고 연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 과정이 그녀의 전기성 실현을 위한 삶으로 마치 날실과 씨실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던 것이다. 삶의 순간순간이 연속된 계열로 이어지며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설계 하며 마침내 그녀의 ‘예술가’라는 정체성, 전기성의 실현이라는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김태중, 2014).

둘째, 연구참여자 개인의 생애사에는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역사적 흐름이 녹아있다. 생애사 연구는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듯이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몸담고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써의 삶을 살았다. 미술교육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에, 김현경이라는 개인은 현재의 조건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는 존재로서 현재를 살아가며, 기성 질서를 순응하며 살아가기보다 앞으로의 미술뿐만이 아닌 예술정책 전반을 위한 미래지향적 삶을 살았다(Unger, 2012). 주지과목이 아닌 음악, 미술, 체육의 등급평가가 폐지될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그녀는 결코 순응하지 않고 비판적 실천 방법으로써 전국의 미술교사들의 힘을 모아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전국미술교사들이 기존 정부의 방침에 강력히 저항함으로써 인하여 그 정책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정책이 다음 정권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처럼 김현경이라는 개인의 투지와 노력과 실천이 공동체를 바꾸고, 공동체의 노력과 저항은 바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를 우리들에게 던져준 것이다.

셋째, 김현경은 삶속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하였다. 그녀의 삶을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다. 자신의 삶에 놓여 있는 무수한 선택지들을 성찰적(reflexive)으로 스스로 선택하며 전기학습 과정에 참여하였다(강진희, 2016; 김미자, 전주성, 2014; 전주성, 2012). 즉 김현경은 중, 고등 시절 부모의 선택으로 예고와 미대에 진학하지 못한 아쉬움에서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으로 인해 달라지는 운명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의 인생 항로를 밝게 되었다. 김현경은 성인이 된 이후, 교과서 집필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선택, 미술교육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교직 휴직을 결정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선택, 교직경력 20년의 안정적인 연금과 급여, 보장된 사회적 지위 대신 K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입사하여 예술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선택을 하였다. 이처럼 선택하기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순간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실천을 요구하며 세상 밖으로 나와 굳건히 서려는 자기 나름의 ‘실존적인 실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한준상, 2009). 김현경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무수한 실존적인 선택을 통해 진정한 자신이 되어갔다.

## 참고문헌

- 강민수, 문용린 (2007). 생애사 연구의 교육심리학적 고찰. **인간발달연구**, 14(1), 1-19
- 강진희 (2016). 노인여성의 영어 문해교육 참여 경험의 의미. **Global Creative Leader**, 6(1), 23-48.
- 김미자, 전주성 (2014). 새로운 ‘나’를 만남: 성인학습자에게 있어 깨달음의 의미. **평생교육 · HRD연구**, 10(1), 25-40.
- 김영천, 한광웅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애사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연구**, 18(3), 5-43.
- 김석래, 손민호 (2011). 초등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 **교육문화연구**, 17(1), 163-194.
- 김희연, 김은숙 (2013). 어린이집 교사의 생애사 연구: 김교사의 이야기. **교육인류학연구**, 16(1), 25-63.
- 김태종 (2014). 전기학습 관점에서의 초고령 학습자의 학습 경험이 갖는 의미. **평생학습사회**, 10(14), 1-28.
- 미술교육발전공동대책위원회 (2003). 2003년 미술교육발전공동대책위원회 활동백서. 미술교육발전공동대책위원회.
- 우지만 (2013). **중년기 체육 교사의 교수 전문성 형성 과정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이동성 (2013). 생애사 연구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방법에 대한 탐구. **초등교육연구**, 26(2), 72-96.
- 이동성 (2015). **생애사연구**.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이희영 (2005). 사회학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전주성 (2012). 전기학습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루지 못한 삶(unlived life)’ 구현이 갖는 의미 탐색. **Andragogy Today**, 15(4), 93-111.
- 정민승 (2010). **성인학습의 이해**. 서울: 에피스테메
- 한경혜 (2005).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본 남성의 삶.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30.
- 한준상 (2009). **生の 痲: 배움**. 서울: 학지사.
- Alheit, P., Bron-Wojciechowska, A., Brugger, E., & Dominicé, P. (Eds.). (1995). *The biographical approach in European adult education*. Vienna: Verband Wiener

Volksbildung.

- Alheit, P., & Dausien, B. 2002. The double face of lifelong learning: Two analytical perspectives on a silent revolution. *Studi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34(1), 3-22.
- Aleit, P., & Hoerning, E. M. (Eds.) (1989). *Biographisches wissen, beitrage zu einer theorie lebensgeschichtlicher. Erfahrung*, FrankfurtamMain: Campus.
- Alheit, P. (1995). \*Biographical learning: Theoretical outline, challenges, and contradictions of a new approach in adult education. In P. Alheit, A. Bron-Wojciechowska, E. Brugger, & P. Dominice (Eds.), *The biographical approach in European adult education* (pp. 57-54). Wien: Verband Wiener Volksbildung.
- Alheit, P. (2009). Biographical learning: Within the new lifelong learning discourse. In K. Illeris (Ed.), *Contemporary theories of learning* (pp. 249-275). New York: Routledge.
- Behar-Horenstein, L. S., & Niu, L. (2011) Teaching critical thinking sills in higher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ollege Teaching & Learning*, 8(2), 25-41.
- Bensley, D. A. (2010). A brief guide for teaching and assessing critical thinking in psychology.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23, 49-53.
- Cole, A. L., & Knowles, J. G. (2001). *Lives in context: The art of life history research*. Walnut Creek, CA: Altamira.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다섯 가지 접근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13 출판)
- Dumphath, R. (2000). Life history methodology: 'Narradigm' regained.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13(5), 543-551.
- Hodkinson, P., Hodkinson, H., Evans, K., Kersh, N., Fuller, A., Unwin, L., & Senker, P. (2004). The significance of individual biography in workplace learning. *Studies in the education of Adults*, 36(1), 6-24.
- Jarvis, P. (2009). Learning to be a person in society: Learning to be me. In K. Illeris (Ed.), *Contemporary theories of learning* (pp. 41-54). New York: Routledge.
- Illeris, K. (2013) 현대 학습이론 세계적인 석학 16인의 시각 (전주성, 강찬석, 김태훈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9 출판)
- London, M. (2011). Lifelong learning: Introduction. In M. London (Ed.), *The Oxford handbook of lifelong learning* (pp. 3-1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edder, M., & Biesta, G. (2007). What does it take to learn from one' s life? Exploring opportunities for biographical learning in the lifecourse. In B. Merrill (Ed.), *Learning*

to change?: The role of identity and learning careers in adult education. *European Studies in Lifelong Learning and Adult Learning Research: Vol. 5*.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pp. 33-47).

Merriam, S. B., & Bierema, L. L. (2016). *성인학습 이론과 실천* (최은수, 신승원, 강찬석 공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원저 2014 출판).

Usher, R. S., Bryant, I., & Johnston, R. (1997). *Adult education and the post modern challenge: Learning beyond the limi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Unger, R. M. (2012). *주체의 각성* (이재승 역). 서울: 엘피. (원저 2016 출판).